

보도자료

인니 열대우림 파괴로 기후와 생물다양성 해치는 무림페이퍼

국내 2위 제지 업체, 세계 3대 열대우림서 무분별한 개간으로 큰 피해와 손실 불러
“무림페이퍼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

국내 제지업계의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세계 3대 열대우림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내 2위 제지 업체인 무림페이퍼는 합리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의 문화와 역사가 서린 산림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간하며 산림을 훼손하고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비판하기 위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림페이퍼의 무분별한 해외 사업으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를 비판했다.

세 단체는 무림페이퍼의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문제를 조명한 보고서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의 숲과 사람들: 무림페이퍼의 파푸아 섬 플랜테이션의 실체'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제 환경단체와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통해 열대우림 개간으로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무림페이퍼를 비롯해 투자자, 파트너, 한국 정부에 이와 같은 사태를 중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림페이퍼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 목재 플랜테이션 회사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이하 PT PNMP)'를 설립해 약 6만 4,000ha 규모의 조림 사업지를 운영 중이다. 이 부지는 습지, 사바나가 만나 총적 역할을 하는 섬세한 생태계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제지의 원료인 목재칩 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일차림과 이탄지를 포함한 6,000ha 이상의 산림을 개간했으며, 추가로 더 많은 숲으로 개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의 의식주가 위협받고 있으며, 문화와 역사가 담긴 관습적 토지는 물론,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성소까지 파괴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지금까지 정확히 무엇이 위험에 처하거나 유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무림페이퍼의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필요한 보호적 조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때까지 추가 개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미 파괴한 산림지역

2022년 3월 15일 배포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의 복원을 약속하고, 토착 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전통적 토지의 모든 사용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원칙을 이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와 함께 세 단체는 무림페이퍼의 산림생태계 파괴로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슬퍼하고 기리는 취지에서 추모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는 무림페이퍼가 매년 개최하는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착안하여, 무림페이퍼를 상징하는 종이비행기에 헌화하고 추도사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미국변호사

"PT PNMP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림파괴와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PT PNMP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무림피앤피에 91억원의 용자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PT PNMP에서 일어난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연관이 되었다. 정부는 무림피앤피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이행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아니사 라마와티, 마이티어스 인도네시아 캠페인 활동가

"이 보고서는 무림과 같은 기업이 어떻게 산림관리협의회(FSC) 산림인증 라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 FSC는 이렇게 산림인증 조건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FSC 라벨은 그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일 뿐이다."

프랭키 삼페란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푸사카 대표

"무림페이퍼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들은 이미 양질의 식량과 물, 생계 수단을 구하고 지역화합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보상은 이를 무마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림페이퍼의 혐의에 제재해야 한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